

최흥종은 단순한 종교지도자가 아닌 '광주가 낳은 정신적 유산'

■ 오방 최흥종,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① 광패 최망치에서 오방 최흥종까지

한 인간의 변화가 한 도시를 바꾸다

광주의 역사는 단지 사건의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눈물, 희망과 헌신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기억의 역사이다. 그래서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 도시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살펴 보아야 한다.

광주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 독립운동가가 있고,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있으며,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다. 그러나 광주의 정신적 유산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오방(五放) 최흥종 목사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그의 이름은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최흥종은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였고, 절인들의 아버지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광주의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흥종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는 미션21이, 올해로 서거 60주년을 맞는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선생의 일대기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이백행 본지 주필



오방 최흥종 선생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다. 최흥종의 젊은 시절 별명은 '최망치'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하는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름이다. 당시 그는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정의감은 강했지만 혈기 또한 강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냈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인간의 삶은 때때로 한 번의 만남으로 바뀐다. 최흥종에게는 선교사 유진 벨과의 만남이 그러했다. 물론 회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예수를 단순한 종교적 스승으로 만나지 않았다. 예수의 삶을 통해 자신이

은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조차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러나 최흥종은 자신의 문제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 신앙은 그에게 종교생활이 아니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양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담는 상징이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자 했다. 오늘날 우리는 스펙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며 거주지를 바꾸기도 한다. 그

전환이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

최흥종의 생애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낮아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꾼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흥

가진 것을 나누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였고 절인들의 아버지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이웃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증명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질병은 삶의 일부였다. 사회적 약자들

영종에서 흥종으로 최흥종은 이름까지 바꾸었다. 영종(永鍾)에서 흥종(興鍾)으로, 이름 하

려나 정작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최흥종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바꾸었다. 그래서 그의 변화는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존재의

중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갔다. 한센병 환자들, 절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절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존재들이었다. 가족조차 그들을 외면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차별과 고립이었다.

그러나 최흥종은 그들을 사람으로 대했다. 손을 잡아주었다. 함께 식했다. 함께 울었다. 함께 기도했다. 그는 자신을 배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려 했다. 이것이 최흥종 사역의 핵심이었다.

왜 지금 최흥종인가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시대보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

고 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공동체는 약해졌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다.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장은 있었지만 신뢰는 약해졌다. 프로그램은 많아졌지만 감동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최흥종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신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복음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최흥종은 이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답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다. 고통받는 이웃 곁에 머무는 것이 복음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다. 광주의 정신적 유산, 최흥종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광주가 낳은 정신적 유산이다.

그가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다. 재도가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가 그를 다시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한 세기 전 최흥종이 걸었던 길은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누구의 곁에서 있는가?"

다음 회에서는 최흥종이 평생 동안 펼쳤던 구제·교육·한센인 사역과 YMCA 운동을 통해 왜 사람들이 그를 '광주의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 봉선리에 나병원 설립, 봉선리교회(나환자교회)창설.



광주 제중원(현 광주기독병원)에서 환자 치료.

부흥회를 하면 부흥이 됩니다

김병훈목사 초청 고창은혜기도원 연합치유성회

주최: 내오트빌을 고쳐주세요(사민 103-3)
일시: 2026년 5월 25일(일)~28일(목)
시간: 오전 10:30, 오후 2:30, 밤 7:30

5.25(일) 5.26(화) 5.27(수) 5.28(목)

부흥회 특강 5.27(수) 오후 4:00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희용 목사 010-8007-9142

김병훈목사 초청 대부도 엘림수양관 연합치유성회

주최: 주님나눔 치료재중흥소(아사미 38-16)
일시: 2026년 6월 8일(일)~11일(목)
시간: 오전 10:30, 오후 2:00, 오후 4:00, 밤 7:00

6.8(일) 6.9(화) 6.10(수) 6.11(목)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희용 목사 010-3007-9142

김병훈목사 초청 큰심자가기도원 연합치유성회

주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소서(광복4로)
일시: 2026년 6월 22일(일)~25일(목)
시간: 10:30~2:00, 2:30~7:00

6.22(일) 6.23(화) 6.24(수) 6.25(목)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희용 목사 010-3007-9142

날 짜	강 사	장 소
9.28~10.1	7명 대회장	목포 중앙기도원
8.24~8.27	9명 대회장	장성 남경신기도원
7.13~7.16	9명 대회장	목포 풍성한교회
7. 6~7. 9	9명 대회장	인천 주사랑기도원
6.22~6.25	9명 대회장 김중환 김병훈 정찬경 손태홍 이상열 손형훈 김중환 최희용 배성찬 서재철	큰심자가기도원
6. 8~6.11	16명 대회장 손태홍 김병훈 김우섭 마영수 박병철 박일규 이광현 박순희 서정우 김경현 박 민 최희용 조한우 정찬경 임선대 김기성	대부도 엘림수양관
5.25~5.28	9명 대회장 박상옥	고창은혜기도원
4.27~4.30	9명 대회장 이진구	충주다메섹기도원
3.23~3.26	9명 대회장 리중기	목포중앙기도원

대한(大韓)부흥사협회(Korea Society of Reconstruction and History) 집회문의: 010-3007-9142, 010-3250-8542

모든 집회는 CYN(최용남)TV로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후에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